

### 3. 화성의 개요(概要)



### 3. 화성의 개요(概要)

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지금의 서울시립대 뒷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의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긴다음 축성되었다.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성은 **정약용(丁若鏞)**이 동서양 기술서를 참고하여 기획하였고, 재상을 지낸 영중추부사 채제공의 총괄아래 조심태의 지휘로 1794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 축성시에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특수하게 고안·사용하여 장대한 석재 등을 옮기며 쌓는데 이용하였다.

화성은 축조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성곽의 일부가 파손·손실되었으나 1975~1979년까지 축성직후 발간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의거하여 축성 당시 모습대로 대부분 보수·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화성의 둘레는 5,744m, 면적은 130ha로 팔달산에 걸쳐 있는 평산성의 형태이다. 화성은 팔달문, 창룡문, 화서문의 4대문과 북수문, 남수문의 등 2개 수문을 비롯하여 치성 10, 포(鎗)루 5, 포(砲)루 5, 암문 5, 각루 4, 적대 4, 공심돈 3, 포사 3, 장대 2, 노대 2, 은구 2, 봉돈 1, 등 총 52개의 시설물 이외에 성신사, 사직단, 화성행궁과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포루, 공심돈, 적대, 오성지 등은 이전의 성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구조물들이다. 이 중 수해와 전란으로 9개 시설물(수문 1, 공심돈 1, 암문 1, 적대 2, 포사 2, 은구 2)이 소멸되었다.





화성은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수문(화홍문)을 통해 흐르던 수원천이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창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현재에도 도시내부 가로망 구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등 200년전 화성의 골격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화성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산성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총포의 방어를 고려한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성벽은 외측만 쌓아올리고 내측은 자연지세를 이용해 흙을 돋우어 메우는 외축내탁의 축성술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성곽을 만들었으며, 또한 화성은 철학적 논쟁 대신에 백성의 현실생활속에서 학문의 실천과제를 찾으려고 노력한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벽돌과 돌의 교축, 현안·누조의 고안, 거중기의 발명, 석재와 벽돌의 조화를 이룬 축성방법 등은 동양성곽 축성술의 결정체로서 희대의 수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당대학자들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동서양 축성술을 집약하여 축성하였기 때문에 그 건축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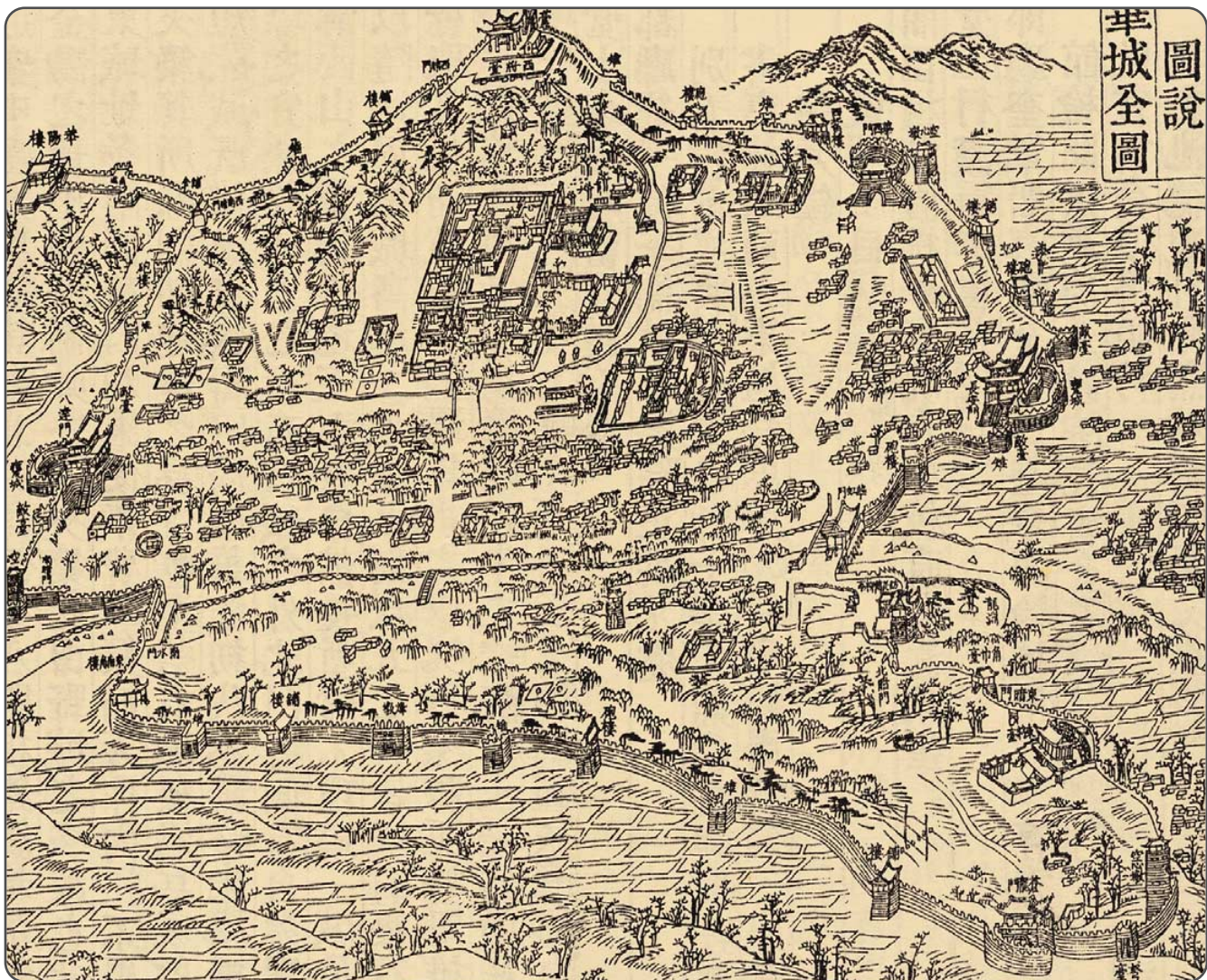
축성 후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성곽축성 등 건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도시의 아름다움을 이미 당시에 수원춘 8경, 추 8경의 수원 16경으로 내어 보임으로서 화성신도시에 대한 탁월한 경관성과 자긍심을 표현하였다.

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팔달문은 보물 제402호로, 화서문은 보물 제403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圖說  
華城全圖



〈화성성역의궤에 실려있는 화성전도:1796년 제작〉